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22	05. 29	06. 05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5월 축복인사 - 목표를 정하신 성도님을 격려합니다(성도 간에)

아하자(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자신에게)

1.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오후 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5월부터).
5. 코로나 대응 - Luca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5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노지민 성도
-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29 : 31 - 35(구p43)..... 노지민 성도
(1.Moses 29:31-35)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 기도제목

1.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몇 년 전에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라 한 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 한 줍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과연 이 곡식이 살아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말라 버려 생명의 씨가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생명은 강하기 때문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던 농부가 간단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뭘 그리 논쟁하십니까? 땅에 심어보면 알 것일' 학자들은 농부의 말을 듣고 곡식을 땅에 심었더니 70%의 씨앗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3,000년 동안 미라의 손에 쥐어 있었던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자 싹이 돌아났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도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생명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생명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가, 아니면 미라와 같이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지상 첫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고, 교회의 비전이며 불멸의 교회가 갖는 사명입니다.

크리스천다움 / 양승헌 목사
(세대로교회 담임)

* 사랑은 제자를 낳는다. 그러나 사랑 없는 전도는 종교인을 낳을 뿐이다.
- Brian McLaren(미국 Emerging교회 목회) -